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1380
----------	------

발의연월일 : 2005. 2. 18.

발 의 자 : 유기홍 · 김태홍 · 강창일 · 고진화  
배일도 · 최순영 · 강기갑 · 강기정  
강길부 · 강혜숙 · 광성문 · 구논회  
권영길 · 김동철 · 김원웅 · 김영숙  
김재윤 · 김종률 · 김충환 · 김태년  
김현미 · 김형주 · 김홍일 · 노응래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문병호  
문학진 · 민병두 · 박명광 · 박찬석  
박창달 · 배기선 · 백원우 · 복기왕  
서갑원 · 선병렬 · 송영길 · 신중식  
심상정 · 안상수 · 안택수 · 양승조  
오제세 · 우상호 · 우제항 · 유시민  
윤건영 ·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이미경 · 이성권 · 이영순 · 이은영  
이인영 · 이재오 · 이종걸 · 이화영  
장경수 · 장복심 · 장향숙 · 전병헌  
정갑윤 · 정봉주 · 정장선 · 정청래  
정화원 · 제종길 · 조경태 · 조배숙  
조승수 · 지병문 · 진수희 · 천영세  
최용규 · 최인기 · 최재성 · 현애자  
홍미영 · 황우여 의원(82인)

## 주 문

---

---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을 심어 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축소·왜곡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05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한국관련 과거사의 축소·왜곡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1982년 일본의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가 전전(戰前) 일본의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일본의 다음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와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

본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제안이유

2006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들이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바에 대하여 대한민국국회는 개탄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특정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으로부터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뒤집은 것이다.